

2024. 3. 28.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

시설부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급수부장 | 백광인 | 3146-1401 |
| 급수설비과장 | 송종학 | 3146-1470 |
| 시설부장 | 전태호 | 3146-1501 |
| 시설관리과장 | 양해선 | 3146-1530 |
| 관련 누리집 (메뉴) | https://arisu.seoul.go.kr/c1/sub3.jsp | |

서울시민, 노후급수관 교체·세척비 지원받는다.. 맑은 아리수 안전하게 공급

- 다가구주택(최대500만원), 아파트(최대140만원) 등 1만 4천가구, 노후급수관 교체비 지원
- 재건축 등으로 교체 어려운 가구는 급수관 세척 비용(최대18만원), 수도꼭지 필터(최대9만원)
- 전체 배수지(대형물탱크) 102개 대상 상반기 정기 청소 6월까지 진행, 단수 불편 최소화
- 배수지 청소부터 수도관 교체·세척까지 세계 최고 수준 아리수 음용 환경 지속 개선

- 서울시는 올 한해 14,000가구에 대한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하고, 교체가 어려운 가정 5,500가구에 대해서는 급수관 세척(최대 18만원)과 수도꼭지 필터 교체(최대 9만원)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- 수도관 교체 대상은 '94년 4월 이전 지어진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옥내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고, 재개발·재건축 중인 노후 공동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옥내배관 교체공사가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세척비나 수도꼭지 필터 비용을 지원한다.

- 각각의 지원 금액은 교체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80% 이하로 ▲ 단독주택 최대 150만 원 ▲ 다가구 주택 최대 500만 원 ▲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당 최대 140만 원이다.
- 급수관 세척비는 최대 18만 원까지, 수도꼭지 필터지원은 최대 9만 원(1년사용분)까지 지원한다. 수도꼭지 필터비용은 공용 및 세대배관 중 한 곳이라도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이 배관되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고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.
-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는 총 2,082억 원을 투입해 전체가구의 92%에 달하는 52만 가구에 대한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해 옥내 배관을 개선하고 있다. 올해도 91억원을 투입, 14,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별도로 6억원을 투입해 세척비용 및 필터비용을 지원한다.
 - 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'25년까지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56만 5천 가구에 대한 100% 교체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. 2026년 이후에도 필요로 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.
-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등 상담은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번이나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하면 된다.

| 거주지역 | 접수기관 | 전화번호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중구, 종로구, 용산구, 성북구 | 중부수도사업소 | 3146-2000 |
|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 | 서부수도사업소 | 3146-3500 |
| 성동구, 광진구, 중랑구, 동대문구 | 동부수도사업소 | 3146-2600 |
|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 | 북부수도사업소 | 3146-3200 |
|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 | 강서수도사업소 | 3146-3800 |
| 관악구, 동작구, 영등포구, 금천구 | 남부수도사업소 | 3146-4400 |
| 강남구, 서초구 | 강남수도사업소 | 3146-4700 |
| 송파구, 강동구 | 강동수도사업소 | 3146-5000 |

<전체 배수지(대형물탱크) 102개 대상 상반기 정기 청소 6월까지 진행, 단수 불편 최소화>

- 이와 함께 서울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02개 전체 배수지에 대한 청소도 진행한다.
 - 시는 ‘수도법’과 ‘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’에 따라 매년 상반기(4~6월), 하반기(9~11월)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.

- 배수지는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거치는 대형 물탱크로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보내기 전 마지막 저장시설이다.
 - 현재 226만 6720톤(m^3)의 수돗물을 저장할 수 있는 102개 배수지가 운영 중이며, 정전 등 상황에서도 배수구역 1일 최대 급수량의 12시간 이상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.

- 청소는 물탱크 내부 물 때 등을 고압 물 세척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고, 내외부 벽체 구조물 상태, 배관과 밸브 상태 점검 후 필요시 보수도 실시한다.
 -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물탱크가 2개 이상인 배수지는 순차적으로 청소를 진행하고, 단일 물탱크는 청소하는 동안 우회 상수도 배관을 통해 단수 없이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한다.



▲ 배수지 벽체 세척 작업



▲ 배수지 바닥 세척 작업

- 배수지 청소를 후에는 수질검사를 실시해 검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급수를 재개한다.

- 아울러, 지속적으로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보수·보강 공사도 실시한다. 전체 102개 배수지 내부에 방식제 보강 설치를 '3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.

-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“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청소관리부터 노후배관 교체·세척 등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실시하겠다”고 말했다.